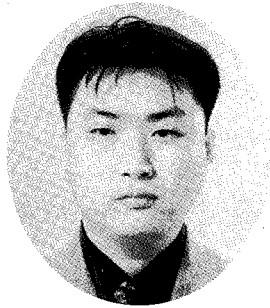


소사육농가들이 협회를 제몸같이 아껴주셨으면



김 성 훈
농수축산 신문기자

낙농육우협회는 그동안 우리 소산업의 불황과 호황을 피부로 느끼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왔지만 최근 WTO출범으로 대변되는 수입개방화 추세를 맞이해 새로운 시험대를 맞이하고 있다.

값싼 모조분유 수입과 소값폭락에 따른 소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을 접하면서 낙농가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비롯 각종 크고 작은 집회를 주도, 실행해오며 농가들의 아픈 곳을 감싸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일에 서슴지 않았다.

기자는 지난 94년 처음 전문지 기자생활을 하게 된 이래로 협회를 꾸준히 출입해 왔다. 협회를 출입하는 많은 기자들 또한 협회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기자

들 사이에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몇 안되는 생산자단체로 낙농육우협회를 인식하고 있다.

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 적용, 낙농진흥법 개정, 축산물가공업무일원화 등 굵직굵직한 축산 현안을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했던 협회의 노력에 대해 일부 전문지 기자들은 협회가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서슴없이 말하곤 한다.

그러나 협회를 출입하는 기자가 협회를 바라보며 느끼는 안타까움도 적지 않다. 다른이런 협회가 왜 꼭된 평가를 받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낙진법 개정을 반대하는 충남지역 일부 낙농가들로부터 비난을 살때도 있고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다른 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협회는 언제나 농민들의 편에서 주장을 펼쳐 왔고 사리사욕이나 특정인들의 이익을 대변 하기 보다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해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귀로 취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농민단체가 그러하듯 협회 역시 재정이 그리 탄탄하지 않다. 직원 한사람 더 채용할 때에도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다 직원들에 대한 처우 또한 다른 사기업에 비해 그리 여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실감이나 부족한 점을 협회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람으로 메꿔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농민들이 알아 줬으면 한다. 소사육 농가들의 이익을 부르짖을 때 정작 농가들은 남들의 일인양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협회가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농민들이 믿고 의지할 때 농민들을 위한 소산업정책이 만들어 질 것이고 우리 농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평범한 진리이다.

협회 사무실은 여느 사무실과 다르게 항상 분주한 느낌을 준다. 오늘도 우리 낙농산업의 앞날을 걱정하고 소사육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앞에서도 결코 지친 표정을 짓지 않는 직원들의 모습속에서 우리 소산업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협회는 기자에게 휴식을 주는 안식처와도 같은 곳이다. 이 곳에는 무엇보다 농민을 사랑하는 애뜻한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그 속에서 내 꿈이 영글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육 농가들이 협회를 제몸같이 아껴주셨으면 하는 게 4년째 협회를 출입하고 있는 한 젊은 기자의 바람이다. ☺